

# 현대음악의 흐름을 주도한 사람, 윤이상

글\_김정민 (음반 칼럼니스트) | 사진\_윤이상평화재단 제공

세계적으로 위대한 음악적인 업적을 이루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그 평가와 가치를 제대로 확인받지 못한 작곡가 윤이상과 그의 부인 이수자 여사의 삶은 우리에게 커다란 의미와 숙제를 동시에 남기고 있다.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민족의 비극적 현실을 떠나면 타국에서 온 몸으로 절규하며 그것을 탁월한 음악의 경지로 승화시킨 윤이상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

《내 남편 윤이상》(창작과비평사)은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난 후, 천천히 기억을 더듬어 그를 추억하고 기념하며 그가 이룬 것이 무엇인가를 그려내고 있는 미망인 이수자의 고백이자 비망록이다.

일제의 핍박과 한국전쟁의 태풍 아래서도 순수한 음악적 열정으로 민족에 보탬이 되고자 했던 청년 윤이상과 가난하고 병든 그를 사랑했기에 완고한 집안의 반대조차 이겨낸 이수자의 푸르른 나날들. 처자식을 두고 불혹의 나이에 한국의 음악 영역을 확장시켜 놓으리라면서 유학을 떠난 남편과 그런 남편을 기다리며 통영 앞바다를 굽어보던 한 여인. 동백림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남편과 나란히 법정에서 서서 실형을 선고 받은 아내. 세계적인 음악가를 그것도 무고한 한 인간을 독재의 잔인한 감옥으로부터 구해내려는 유럽의 인도주의적인 물결. 아이들의 아버지이자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민족애를 지닌 예술가의 일상과 고뇌. 병들고 지친 윤이상의 마지막 나날들을 지켜보며 자신의 손으로 음악으로 다하지 못한 남편의 삶을 마치 최후의 소명인 것처럼 혼신을 다해 기록하고 또 묘사해 내었다.

삶과 죽음의 영역이 도저히 풀어내지 못한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듯 윤이상의 묘비에는 이수자 여사의 이름이 함께 새겨져 있다. 윤이상이라는 존재가 세계적인 음악가로 평가되지 못할지라도 한 남편으로써 자신의 아내에게 이토록 사랑받고 존중받았다는 것만으로 윤이상은 빛나는 존재임이 분명하다. 더욱 확실한 것은 윤이상을 위대하게 만들어준 음악적 위업 언저리에 자신의 빛을 가리고 오직 한 사람을 사랑한 여인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올해는 윤이상 탄생 90주년이다. <나의 땅, 나의 민족> <첼로 협주곡> <교향곡 4번> <로양> 등 현대음악의 커다란 흐름을 주도했던 그의 작품들을 <윤이상 페스티벌>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생일(9월 17일)과 서거일(11월3일)을 기점으로 펼쳐지는 <윤이상 탄생 90주년 기념 페스티벌>



은 윤이상이 왜 세계적인 음악가였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충분히 해소시켜 줄 만큼 다양한 음악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오보에 연주자인 하인츠 홀리거, 지휘자 프란시스 트라비스 등 평소 윤이상과 친분이 두터웠던 세계적인 거장들이 페스티벌 기간에 윤이상의 음악을 빛내주기 위해 먼 길을 마다않고 찾아 온다니 반가울 따름이다. **☞**

## <2007 윤이상 페스티벌>

일시 : 9월 16일~11월 10일

장소 :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국립국악원, 고양 이룸누리, 부산문화회관 등

문의 : 02-2195-5157(사십미디어), 02-723-5669(윤이상평화재단)